초록우산

2022 FALL 216th




한 당신,
루도 충분히 빛나길



"아이들을 향한 나눔과 배려로
우리의 미래에 가치를 더하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이·취임식 현장 스케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7월 27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10대 황영기 신임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취임식에는 지난 12년간 재단을 아동옹호 대표기관으로 성장시킨 제9대 이제훈 회장 및 재단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제10대 황영기 회장과 차흥봉 대표이사, 최불암 전국후원회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이제훈 회장과 황영기 신임 회장의 이·취임을 축하했습니다.
황영기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국가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처한 현실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 재단의 강점인 복지사업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유도해 아동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배려와 나눔의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디지털 연계 활동 강화와 국제 사업 확대 등 아동옹호대표기관으로서 전문성을 키워나가겠다.
아동의 목소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황영기 회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10대 회장으로 취임한 황영기입니다.

극심한 폭염과 기록적인 폭우로 힘겨웠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과 나뭇잎이 오색찬란하게 물들어가는 이 가을에 초록우산 소식지를 통해 후원자님께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금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되기까지 변함없는 후원과 나눔, 사랑으로 함께해주신 후원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감염병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모두가 다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더욱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거리두기로 인한 여가생활 부족 및 사회적 교류 단절은 더 큰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후원자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재단은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일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일이며 우리의 미래는 곧 어린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그늘과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복지사업을 더욱 확대해나가고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아동옹호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주요 NGO들과 협력하며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차가운 비를 막아주고,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든든한 우산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전 세계 아동, 그리고 후원자님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후원자님, 이 가을에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황영기



통권 제216호 **발행일** 2022년 9월 1일 **발행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발행인** 최운열 **편집인** 황영기 **주소** 서울시 중구 무교로 20 어린이재단빌딩 **TEL.** 1588. 1940 **FAX.** 02. 756. 4256 **기획** 서울문화사 **TEL.** 02. 791. 0791 **디자인** DESIGN BY:SOOP **TEL.** 02. 3443. 0924 **사진** Studio DA **TEL.** 02. 517. 7718 **인쇄** ㈜일진인쇄 **TEL.** 02. 499. 4500 **| 편집위원 | 기획 · 편집 홍보실** 이서영 · 정보미 · 이수미 **기획 · 디자인** 서울문화사 · DESIGN BY:SOOP **나눔마케팅본부** 손혜인 **복지사업본부** 정수진 **국제개발협력1본부** 오세미 **국제개발협력2본부** 전단비 **후원서비스본부** 백승숙 **아동복지연구소** 윤수경 **| 자문위원 |**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 이창구 서울신문 기자 · 서범석 세명대학교 교수 ·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최현호 고려대학교 학생 · 채정우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연구원 · 황미경 동방종합건재 대표 · 이세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 신우중 넥스트라운드 AE

소식지 〈초록우산〉은 좋은 사연과 관심 어린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메일 storypr@naver.com 후원 문의 | 전화 1588. 1940
홈페이지 www.childfund.or.kr

Theme

08 **프롤로그** 당연한 일상
10 잃다
14 함께하다
20 회복하다
24 찾다
28 **에필로그**

Story

32 한여름 날의 꿈, 토트넘 홋스퍼와 아이리더의 만남
36 만나고 싶었어요! 키크니 작가
40 초록우산, 초록유산
44 어린이날 이야기
46 후원자 스토리

News

52 #일상스타그램
54 Green News
57 정기후원신청서
58 독자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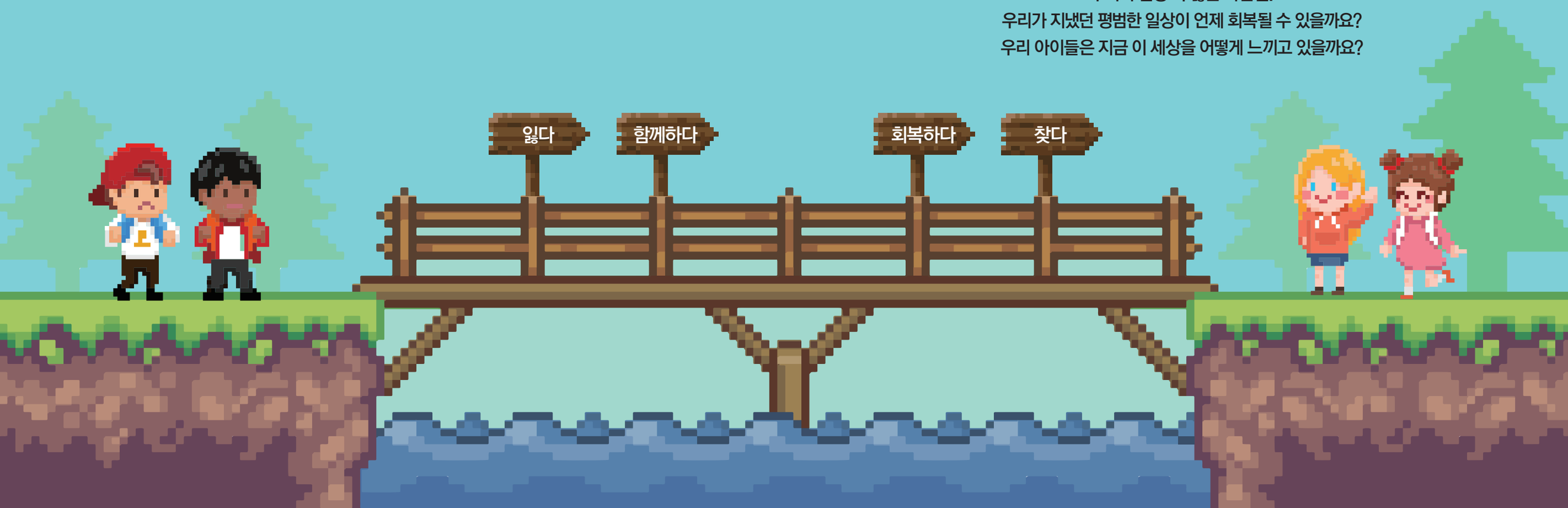
*본 소식지에 실린 인터뷰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했습니다.

THEME

당연한 일상

우리 아이들은 멈추지 않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학교에 가도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야 하고,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놀러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사회적 단절, 우울, 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
우리의 일상 속 많은 아픔들.

우리가 지냈던 평범한 일상이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있다 / 없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맞이했고
우리 사회도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죠. 당연한 일상들이 당연하지 않은 사회.
3년째 지속되는 코로나 속에서 서서히 일상이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다시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과 후, 우리 아이들의 일상과 아이들을 둘러싼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코로나19 전과 후!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Q 코로나19 전과 후 일상,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 설문 참가자의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두 가명으로 소개했습니다.

Q 아이들의 주요 생활 시간

아이들의 생활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수면, 공부, 미디어, 운동 주요 생활시간은 코로나로 인해 어떻게 변했을까요?

코로나19 직후(2020년) 늘었던 수면 시간과 미디어 이용 시간은 2021년에 줄어들고,
공부 시간과 운동 시간은 코로나19 이전(2017년)보다 더 늘었습니다.

〈4대 주요 아동 생활 시간 추이 비교〉

단위: 평균시간/분

구분	2017	2020	2021
수면	7:48	8:14	7:49
공부	2:43	2:28	3:03
미디어	1:41	2:34	2:02
운동	0:12	0:12	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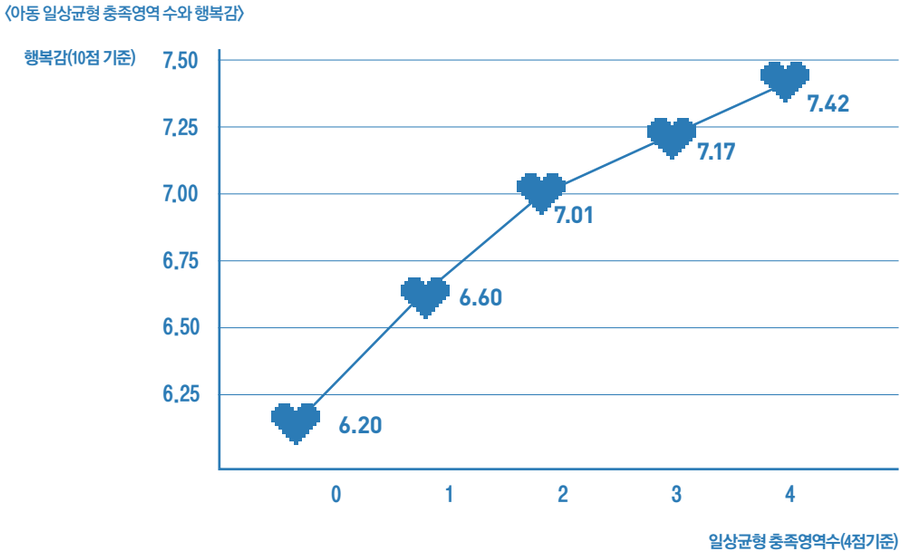
Q 일상 균형 = 행복!

아이들은 행복한가요? 아이들의 일상은 균형적인 모습일까요?

코로나19로 아이들의 일상은 불균형해졌지만 차츰차츰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여전히 아동의 권리와 발달에 불리한 불균형한 일상의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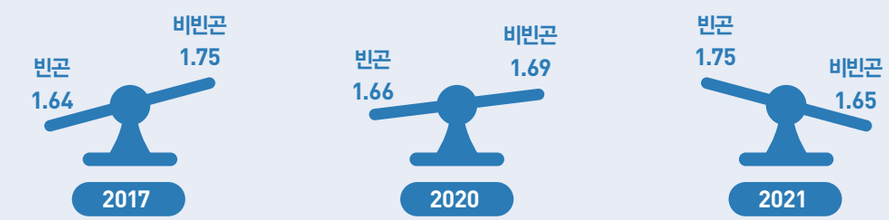
일상이 균형을 이룰수록 아이들은 더욱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균형적인 일상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 일상균형 충족영역 수와 행복감〉



아이들의 일상은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른 균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2020년 조사결과에서는 경제적으로 빈곤할수록 아이들은 행복을 덜 느꼈고 빈곤하지 않을수록 아이들은 더 행복했습니다. 보호자나 형제자매 등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서 비빈곤 아이들이 더욱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2021년 조사결과에서는 이와 반대로 비빈곤 아이들의 행복감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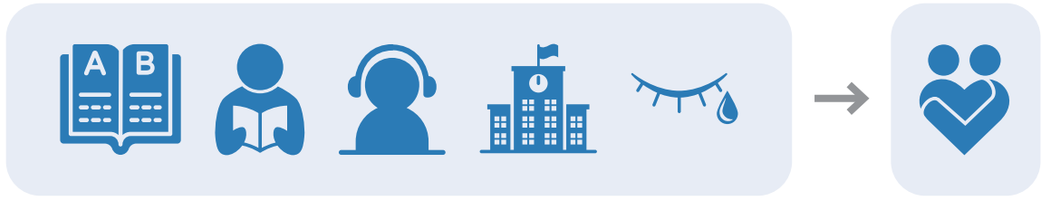
〈3개년 빈곤가구 여부에 따른 아동행복지수〉



코로나19 발생 2년 차인 2021년에는 비빈곤 아이들보다 빈곤 아이들의 일상균형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비빈곤 아이들은 코로나 전에 비해 공부 시간이 과다하게 늘어났고, 빈곤 아이들은 아이들의 권장 운동 시간이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균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혼자인 아이들

혼자 밥을 먹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행복감이 떨어졌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학교 수업 시간, 사교육 시간, 학습 시간 등 학교와 학원 그리고 독서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부모의 학업적 지원과 학업 부담이 늘어난 비빈곤 아이들은 혼밥으로 인해 더 불행해졌습니다.
식사 시간만이라도 누군가 함께하는 외롭지 않은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보호자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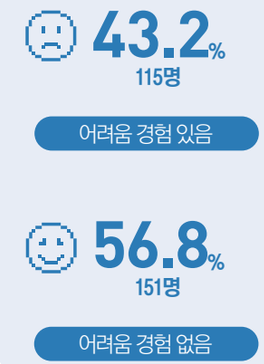


출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2022). 제21차 아동복지포럼 '2022 아동행복지수 아이들이 행복 격차를 좁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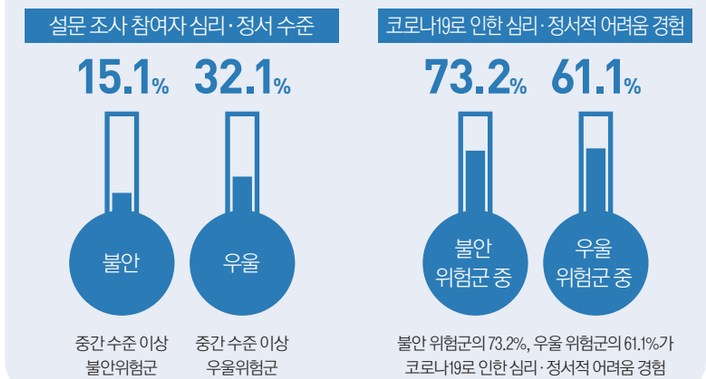
아이들의 마음

아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서적 어려움을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웠는지 아이들에게 물어보았고 과반수에 가까운 아이들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우울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자살충동 생각, 우울, 불안, 공격성 등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의 행복감이 코로나 전에 비해 낮아지고 있어 모든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주목해 마음 건강을 지켜줘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정서적 어려움 경험〉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청소년 심리·정서적 수준〉



출처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2021). 코로나19 사회재난 상황 속 아동·청소년 심리·정서 지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함께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일상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도 없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학교의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심화되는 학습 격차,
코로나가 불러온 심리적 우울감 등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 상황에 놓인
우리 아이들과 가정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잇(IT)다클래스

코로나로 인한 아이들의 일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아이들에게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설문 결과 아이들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227명), '정규수업 외 수준별 맞춤형 수업 콘텐츠'(149명)를 꼽았습니다.

한편, 코로나19와 유사한 대규모 전염병 스페인독감이 유행하던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추적연구에서 태아기에 이와 같은 질병 노출은 뇌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 연수 감소와 더불어 건강의 질 저하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 저하로까지 이어진다는 결과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서 교육 격차와 심리·정서적 공백의 어려움을 겪어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시의적절한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취약가정 아동들의 기초교육과 정서적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잇(IT)다클래스 사업을 기획하여 아이들과 함께했습니다.

찾아가는 멘토링 서비스로 사회복지, 심리, 아동교육 분야 전문 경력자들로 구성된 전문 멘토 선생님들이 아동 개인별 맞춤형 기초학습, 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회복지원사업

RECOVERY 리커버리 PROJECT 프로젝트

코로나19 회복지원사업 RECOVERY 프로젝트

코로나19 회복지원사업 리커버리 프로젝트는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100억원 규모로, 아이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반 가정에서 보호 대상(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되고,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놓였으나 지원으로 회복이 가능하며 코로나 감염 및 백신 후유증으로 인해 보호자의 사망, 중증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아동 및 아동가정과 함께합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일반 저소득 이하 아동과 아동가정,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및 외국인 자녀, 미등록 외국 국적 아동, 중도입국자녀, 코로나로 인해 보호자가 실직, 폐업, 사망하거나 중증질환 등을 앓게 된 경우, 그 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및 아동가정과 함께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경제적인 지원과 더불어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학습권 격차 및 심리적 우울감을 해소하며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초록우산이 함께합니다!

〈경기도〉
코로나19로 아이들이 겪게 된 교육격차, 정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취약가정 아동들의 기초교육과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잇다클래스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OFF&ON라인 학습과 정서 멘토링으로 아이들과 함께했습니다.

"잇다클래스는 저에게 '즐거움'이에요. 학교에서 수학 수업 진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놓쳤던 부분을 다시 배우고 복습하면서 수학이 쉬워지고 재미있어요! 학교에서도 시험이나 숙제를 하면 3-4개 문제는 꼭 틀렸었는데, 이제 1-2개만 틀려요(웃음). 멘토 선생님과 공부뿐만 아니라 EQ나 보드게임도 하고 있어요. EQ활동을 통해서는 저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민거리가 있을 때, 같이 고민해주시고 앞으로 노력해야 할 점들을 이야기해주셔서 좋아요!(현○경, 11세)"





〈경상도〉
코로나19로 인해 저하된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의 문해력(어휘, 독해, 이해, 창작 등의 능력) 회복과 향상을 위해 다시 자라나는 나의 인문학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문해력 향상을 위한 논술교육, 독서논술, 어휘력, 독해력 교육으로 아이들과 함께했습니다.

"최근 아이들을 키우면서 학습에 부족함을 느끼고 특히 말과 언어에서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오면 늘 국어 과목이 가장 낮은 점수이기도 하고, 이야기를 해도 가끔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걱정이 되었었는데, 복지관에서 논술수업을 한다니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중학생인 우리 아이들의 일정도 맞춰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김○경 아동 엄마)"

〈전라도〉
장기간 코호트 격리 중인 아동양육시설 아이들의 피로 해소 및 욕구 충족을 위한 긴급지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코호트 격리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 식비와 간식비를 지원하며 아이들과 함께했습니다.



"한정된 공간 안에서 여러 명의 아픈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며 스트레스가 쌓였는데 '맛있는 음식만 계속 먹을 수만 있다면 잠깐씩은 이렇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지원사업을 통해 아이들의 어려움 중 많은 부분들이 해소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격리의 시간을 결코 고통과 인내의 시간으로 보내지 않게끔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아동양육시설 선생님)"





〈인도네시아〉
Back to School, Are You Ready?! in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학교도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했습니다. 재단은 학교 관계자를 모아놓고 방역 및 위생 수칙을 알려주는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오랜만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를 위해 교내 감염 예방 대책 안내서를 만들어 각 가정에 전달했고, 학교에서 지켜야 할 위생수칙을 담은 교육 자료와 포스터를 만들어 지역사회에 배포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오랜만에 학교에 돌아온 아이들이 더욱 행복하게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용품과 빨아 쓸 수 있는 예쁜 마스크, 학교에 세정제와 체온계를 지원하며 아이들과 함께했습니다.

"지원해주신 학용품과 마스크는 형편이 어려운 저희 집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항상 마스크를 쓰고 비누로 손을 씻으면서 학교에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할게요!" (안디카, 11세)

"부모님이 사주신 일회용 마스크는 가끔 냄새가 나서 숨이 막히고 코가 가려웠어요. 그런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주신 새 마스크는 다시 빨아 쓸 수도 있고 부드럽고 좋은 냄새가 나요." (자키, 7세)



아이들과 함께하는 초록우산 직원 이야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업1팀 김현정 팀원

'일상탈출 세상외출'

복지관에서 '일상탈출 세상외출' 이라는 프로그램을 맡아 총 48명의 아동 가정들에게 여행, 외식,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어요. 프로그램의 시작은 '아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느 날처럼 사례 아동과 이야기를 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아동 아버지가 실직했고 아동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가족들과 외부 활동도 할 수 없어 속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한 가정만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다른 아이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외부 활동에 대한 수요를 복지관 사례 가정 아동 전체에게 물으니 역시나, 아이들은 외부 활동을 바라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하는 외부 활동인 만큼 아동 가정별로 욕구에 맞는 활동을 지원해주고 싶어 직접 한 가정, 한 가정 전화를 걸어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이번 외부 활동 지원으로 기대가 되는 게 무엇인지 물었어요. '부산에 처음 가요!', '덕분에 처음으로 우리 아이가 그토록 원했던 제주도에 갑니다. 너무 기대돼요'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 가는 가족여행에 들떠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는 아이의 설레는 목소리를 들으며 몰래 웃기도 했어요.

아이들과 가족들은 서로가 기획했던 여행, 문화 활동, 외식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쌓였던 스트레스와 여가 활동 욕구를 해소하고 서로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담당자로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기억을 선물해주고 싶어서 아동 가정이 여행 가서 찍은 가족사진을 받아 인화해주기도 했습니다. 한 아동의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잘 나온 사진을 골라달라며 사진을 20장씩 보내셨어요. 가족 사진 속 아이들이 수줍지만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게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번 여름은 특별한 여름이 되었겠지요. 아이들과 가족들이 먼 훗날 지금을 떠올리며 가족과 함께 웃고 추억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웃을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텅 비었던 교실, 다시 아동들의 목소리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한국은 쌀쌀하기만 했던 3월, 평균기온 34℃의 무더운 라오스에서 파견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라오스 입국을 미루고 미루며 한참을 기다리다 시작한 파견근무라 설렘보다도 걱정과 우려가 앞선 것 같아요. 우여곡절 끝에 라오스에 발을 내딛고 직원들 건강 상태와 사업 지역 마을들의 상태를 점검한 후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챙겨 도서관이 건축되고 있는 학교에 방문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조치로 인해 학교 운영이 일시 중단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만나 보니 갑작스럽게 아주 긴 방학을 보내게 된 라오스 시골의 아이들은 학교가 문을 닫는 걸 별로 반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주로 부모님을 도와 집안일을 하거나 농사일을 돕고, 어린 동생을 돌보고, 가축을 치는 일을 한다고 대답했거든요. 이곳에서는 학교가 아니면 딱히 공부를 가르쳐주는 곳도, 선생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은 탓에 재단이 준비했던 여러 활동을 진행하기 어려워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더더욱 멈출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가정 경제로 아동들이 집안일이나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결국 학교에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주춤한 틈을 타 다시 철저한 방역 준비와 함께 마을 축제를 열었습니다. 전처럼 가깝게 앉아 음식과 정을 나누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지만, 재단과 마을 주민들이 준비한 활동과 공연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국에 잠시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물론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에게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왜 학교 교육이 중요한지, 남녀 불문 모든 아동들이 학교에 가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아이들, 특히 십대 여학생들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기보다 학교에 나와 공부를 계속하고 자신만의 꿈을 꾸고 이루기 위해 노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이제 곧 라오스 시골 마을에도 학교가 문을 다시 엽니다. 덕분에 재단과 학교의 선생님들도 더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바쁘지만 텅 비었던 교실들이 다시 아동들의 목소리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회복하다

소윤이의 회복 이야기

엄마, 아빠, 남동생, 여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다섯 식구가 함께 살고 있어요. 아빠는 나라에서 지원받아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이곳저곳 열심히 일할 곳을 알아봤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카페에서 새롭게 직원을 뽑지 않는대요. 아빠는 지인의 카페에서 잠깐씩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지만 코로나19로 손님이 오지 않아 일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엄마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했어요. 보육교사로 일하기 위해 꼭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서울에서 진행되어서 며칠 동안 교육을 들어야 한대요. 그런데 엄마가 코로나19 확진이 되고 아파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다행히 회복해서 서울로 교육을 들으러 가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지만 저와 동생들을 위해 엄마, 아빠가 열심히 교육받고 다시 일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은 오래된 주택이에요. 집에서 매일 물이 새서 방에 곰팡이가 펴 있어요. 집이 더러워지고 보기도 불편해요. 저는 비염에 걸려서 힘들어요. 곰팡이 때문에 제가 더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비염이 심해서 한 달에 5~6번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얼른 곰팡이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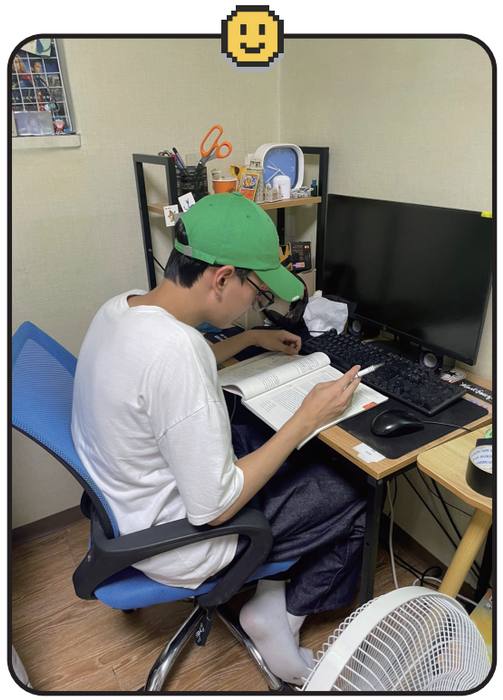




리커버리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고

제 이야기를 들은 좋은 어른들이 집에 있는 곰팡이를 없애준대요! 곰팡이를 없애기 위해 우리집 공사를 했어요. 제 방이 달라졌어요. 방에 있던 곰팡이가 없어지고 깨끗해진 방에서 공부를 하며 쉬고 잘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 밖에 지하로 난 문이 있어서 집 안이 더욱 습했었는데 문을 막아서 밖에서 벽을 타고 들어오는 습기를 막아 이제는 집이 습하지 않아요! 곰팡이가 심해서 제 코가 계속 답답하고 호흡기 질환까지 이어질까 봐 걱정했는데 곰팡이도 없애고 단열 처리라는 공사를 해서 깨끗한 집에서 살게 돼서 정말 좋아요. 병원에서 아픈 것도 훨씬 괜찮아지고 있다고 하고 이제 한 달에 1~2번만 와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지금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집도 깨끗해지고 엄마도 일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앞으로 깨끗해진 방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저도 어른이 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도현이의 회복 이야기



올해 수능을 봐야 하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집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할머니는
생활비와 학원비 등 돈을 벌기 위해 식당에서
설거지와 서빙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할머니가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당시 손목 부상,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등으로 할머니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할머니는 쉬시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계세요. 하지만 생활비와 학원비 등
돈이 필요해서 다시 일을 나가셔야 했죠.
그런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고 현재 단독 수급비로만 생활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고3으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학업에
열중하고 있고 올해 영어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수학학원도 더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요. 제가 학원비가 부족해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온전한 자립을 위해 모으고 있던 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해야 하나 고민이 되네요.
학원에 가기 위해서 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해야 할까요?

리커버리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고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학원에 다니고 싶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아
할머니께 학원에 가고 싶다는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선생님 도움으로 코로나 리커버리 회복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좋은 기회로 학습비를 지원받아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뻤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어요. 할머니도 지원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제가 그동안 열심히 모았던 디딤씨앗통장도 깨지 않고 계속 모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얼마 남지 않은 수시와 수능, 도움받은 만큼 학업에 더욱 열중할게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찾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일상 속에서 행복과 희망을 찾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Q.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일상, 기억에 남는 하루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지혜(초6)

친구들이랑 집에서 게임을 해서 즐거웠어요!

집에 있는 일이 많아서 더 얘기할 시간이 많아졌어요.



서현경(초5)



이유진(초6)

팝업 놀이터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을 때가 행복했어요.

코로나로 인해 친구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안주희(초5)



하지원(초4)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시골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학교 원격수업을 해서 좋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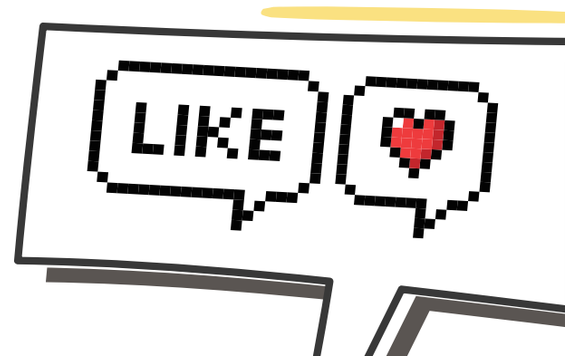
장민성(초4)



홍수아(중2)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도 있었지만 금방 적응이 되어 가족들과 같이 보드게임도 하고 좋았어요.

* 설문 참가자의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두 가명으로 소개했습니다.



Q. "코로나19가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 박예은(쇼6) 세계여행이요!
- 양규연(중1) 수영장 많이 가고 싶어요!
- 서은영(쇼5) 마스크 벗고 신나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 고가온(쇼6) 부모님과 추억 만들고 싶어서 같이 여행 가고 싶어요.
- 조시연(쇼6) 코로나 때문에 놀이공원에 못 가서 가보고 싶어요.
- 방지훈(쇼6) 친구들과 마스크를 벗고 운동을 하고 싶고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요!
- 윤서현(중1)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즐기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재밌는 곳으로 놀러 가고 싶어요!
- 김수희(쇼4) 친구들과 마스크 벗고 놀고 싶어요! 마스크를 쓰고 놀면 답답하기 때문이에요.

Q. "코로나19가 끝난 세상, 어떤 점이 가장 기대되나요?"

- 윤효연(쇼6) 친구들의 맨 얼굴을 보고 싶어요.
- 서다은(쇼5) 마스크를 벗고 뛰어놀고 싶어요.
- 안지효(쇼5) 코로나로부터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없고 친구들과 맘껏 놀 수 있는 점이 기대돼요.
- 김지산(중2)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줄어서 좋고 경제가 다시 활성화 되어 더 좋은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점이요!
- 장규민(쇼6) 캠핑 갈 기회가 많아지는 거요.
- 박소은(중1) 친구들과 마음껏 손을 잡고 다닐 수 있고, 매일 손소독을 안 할 수 있게 된다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돌 팬사인회도 아크릴판이 없어져서 팬과 아이돌의 소통이 쉬워지면 좋겠어요.
- 권지수(쇼1)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요.
- 진예림(쇼2) 답답한 마스크를 벗는 점이요.

Q. "앞으로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지 궁금해요."



아이들은 "코로나가 없어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친구들의 웃는 모습을 보고, 같이 밥을 먹고, 자유롭게 놀러다니는 당연한 일상이 돌아오길 기대했습니다.
어린이는 안전하고,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롭고,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소망해봐요!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가요!

함께 놀 때 가장 행복한 우리들

목차와 다른 그림을 찾아보세요!



초록우산 메타버스 월드(목차 그림)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조금 바뀌었어요!
바뀐 모습을 찾아주신 독자 중 추첨하여 5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참여 방법: 목차 그림과 다른 부분을 찾아보고 **애독자 엽서의 미니 월드에 동그라미 표시**해서 보내주세요.

STORY

한여름 날의 꿈, 토트넘 홋스퍼와 아이리더의 만남

■

만나고 싶었어요! 키크니 작가

■

초록우산, 초록유산

■

어린이날 이야기

■

후원자 스토리

한여름 날의 꿈, 토트넘 홋스퍼와 아이리더의 뜨거운 만남!



무더운 한여름, EPL 구단 토트넘 홋스퍼 선수,
코치들과 초록우산 축구 인재양성 아이들의
뜨거운 만남의 현장!
7월 11일, EPL 구단 토트넘 홋스퍼가 축구 분야에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 뜻깊은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토트넘 홋스퍼 1군 선수 에릭 다이어, 자펫 탕강가,
트로이 패럿, 말라치 파간월콧 등 4명의 선수와 클럽
앰배서더 레들리 킹, 섀넌 몰로니 코치, 제롬 베이커
코치와 인재양성 아동 22명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칭 세션을 진행하고 오픈 트레이닝 세션 참관을 통해
아동들은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 토트넘 선수들이
실제 훈련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꿈만 같던 시간, 아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Q 각자 자기소개 해주세요.

강은영 저는 동산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강은영입니다.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취미로 축구를 했고, 이후 코치님의 제안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했어요.

서황현우 저는 서황현우라고 합니다. 큰 키 덕분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코치님께 발탁되어 축구를 시작했고 6학년 때 골키퍼로 전향했어요. 지금 효정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효정FC의 골키퍼입니다.

명승지 저는 청남중학교 3학년 명승지입니다. 초등학교 때 처음 방과 후 축구를 시작했어요. 감독님께서 빠르고 영리한 선수라고 칭찬해주셔서 축구선수를 꿈꾸게 되었죠. 현재 청남FC의 중앙 미드필더예요.

Q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어떻게 처음 알게 되었나요? 이번 토트넘 홋스퍼 코칭 세션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서황현우 효정중학교 교육복지사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선생님을 통해 토트넘 홋스퍼 코칭 세션도 알게 되었고요. 축구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명승지 축구를 계속하고 싶던 차에 드림스타트 선생님 덕분에 인재양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임성경 선생님의 추천으로 토트넘 홋스퍼 코칭 세션에도 참여하게 되었고요.



강은영 처음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을 때 뜻깊고 좋은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번 세션은 특히 제 축구 실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신청했고요. 언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선수들을 직접 볼 수 있겠어요!

Q 토트넘 홋스퍼 구단과의 만남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어떤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강은영 동기 부여예요. 선수들을 보며 나도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오픈 트레이닝 세션 참관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훈련 중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어떤 움직임을 취하는지 볼 수 있었거든요.

명승지 말 그대로 영광이었죠.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기에 저는 행운아라고 생각해요. 파간월콧, 트로이 패럿 선수와의 패스 게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배운 기본기를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서황현우 생애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평소에 좋아했던 토트넘 홋스퍼의 선수들을 직접 처음 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특히 손흥민 선수가 실제 축구를 하는 모습이 대단했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Q 축구를 하다 보면 힘든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극복했나요?

강은영 목표한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생각보다 경기를 많이 뛰지 못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심적으로 힘들었죠. 경기를 뛰기 위해 매일같이 새벽, 야간 운동을 했어요. 돌이켜보면 제 단점을 보완할 기회였죠.

서황현우 작년 제주도 대회에서 선배의 부상으로 대신 출전했을 때 부담을 이겨내기 어려웠어요. 저는 지칠 때마다 충분히 쉬려고 해요. 축구는 신체 활동이라 회복을 통해 다시 경기에서 뛸 힘을 얻습니다.

명승지 축구선수라는 꿈을 위해 참으며 더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껏 저를 도와주신 분들도 생각해요. 특히 저를 위해 고생하시고 주말에도 경기 일정에 맞춰 시간 내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Q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그 꿈을 통해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강은영 제 꿈은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고, 사람들이 여자 축구에 많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축구를 통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고 싶고, 사회적 약자들을 도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서황현우 저는 프로 축구선수가 되어 안정된 삶을 통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명승지 제 꿈은 축구를 사랑하고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는 축구선수입니다. 그리고 꼭 국가대표가 되어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싶어요. 그리고 저보다 어렵고 불편한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될 거예요.



Q 각자가 생각하는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서황현우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평화로운 세상이요.

강은영 어린이들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진정 살고 싶은 인생을 꿈꿀 수 있는 세상이요. 나아가 서로 돕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세상이면 범죄도 없지 않을까요? (웃음)

명승지 어린이의 생각이 존중받고, 어린이 누구나 꿈을 꾸며,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세상이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Q 축구선수 생활에 있어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해요.

강은영 기량을 최대한 끌어내 시즌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경기장에서 제가 원하는 플레이를 다 보여주고 싶고요. 대학에서도 계속해서 자신 있는 축구를 할 거예요. 언젠가는 해외에서 즐겁게 축구를 하고 싶어요.

서황현우 일단 울진에서 열리는 전국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고요. 축구선수라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운동을 열심히 할 거예요. 매일매일 훈련을 소홀히 하지 않는 축구선수가 되겠습니다.

명승지 울면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성실히 훈련에 임하고 늘 준비된 선수가 되고 싶어요. 이후 프로팀에 입단해 경험을 쌓을 계획이고요. 훗날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달고 축구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웃음)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강은영 여자 축구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자 축구만의 고유한 매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황현우 토트넘 홋스퍼를 만나고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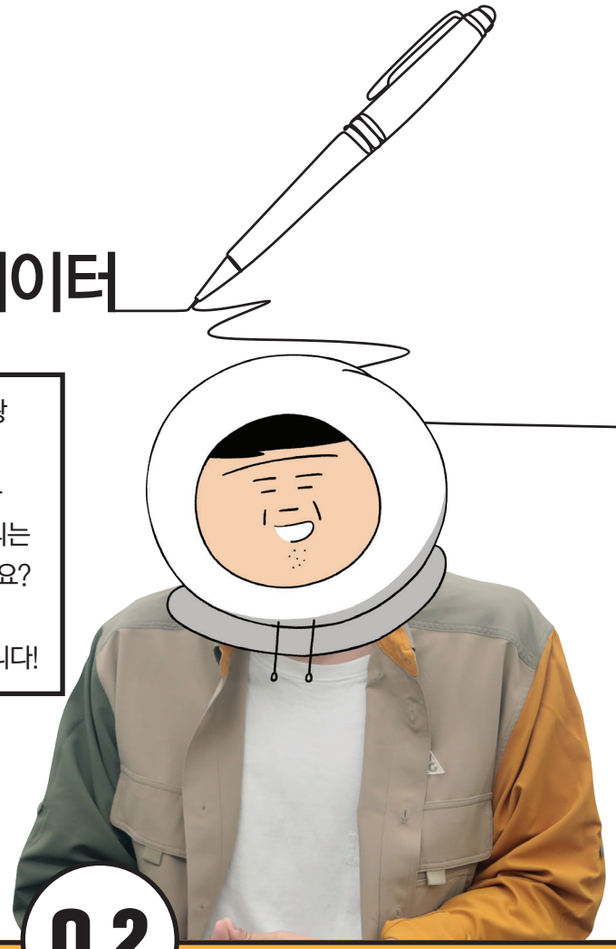
명승지 저는 기적 같은 일을 선물 받았어요. 평생 한 번 보기도 어려운 손흥민 선수도 만났잖아요! 축구라는 꿈을 잃지 않도록 지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어른이 되어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Story

만나고 싶었어요!
키크니 일러스트레이터

SNS 93만 명과 소통하고 있는 소통왕
키크니 일러스트레이터!
그림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감동, 울림을 주는 키크니 작가님이 그리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림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키크니 작가님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키크니 작가님,
질문 있어요!

Q.1 키의 비결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키가 클 수 있었나요?



어렸을 때 물 대신 거의
우유를 마셨고 농구를
좋아하지만, 99%는 유전의
힘으로 키가 컸습니다.

Q.2 MBTI가 궁금해요!

쑥쓰러움도 많고 낯을 많이
가리는 ENFP입니다.



Q 만나서 반갑습니다! 〈초록우산〉 독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SNS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며 재미있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키크니입니다.

Q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나요?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낙서하는 것과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림대회에서 제가 그린 그림이 상을 받으면서 '그림 그리는 것을 재미있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반 친구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렸고 친구들이 제 그림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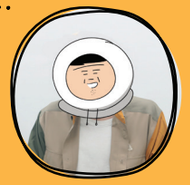
Q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면서 예전부터 어린이 동화, 과학잡지 등 어린이 관련 도서 그림을 그리시고, 최근 아동학대 등 아이들과 관련된 그림도 많이 그리셨어요. 특별히 아이들과 관련된 그림을 그린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 그림체가 아이들에게 친근한 그림체여서 어린이 잡지처럼 어린이 도서 삽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관심이 많고 좋아해요. 제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미술 선생님으로 가서 그림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조금씩 성장하는 게 보였어요. 천천히 성장하는 모습이 참 예쁘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이랑 반려동물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이들은 무해하죠. 이들을 보면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Q.3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요.
잘 그리는 방법이 있나요?

그림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림은 많이 그리고 오래 그려야 합니다.





Q.4 키크니 작가님처럼 센스 있게
작명하고 싶어요. 팁을 알려주세요.

제일 중요한 건 많이 해봐야
합니다. 평소에 많이 생각해보고,
영화, 드라마, 예능, 만화책 등
다양하게 많이 보세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무언가를
보면 '나라면 어땠을까?'라고
상상을 계속했습니다. 많이
상상하고 생각하면 이어져요.

Story





Q 키크니 작가님의 그림을 보면서 많이 울고 웃습니다. 작가님의 그림은 재미있고 감동적이에요. 무엇보다 키크니 작가님의 작명이 정말 센스 있고 재미납니다. 그림과 작명 센스, 아이디어나 영감은 어디서 얻으시나요?

이런 질문을 평소에 많이 받아서 고민을 하지만 딱 무엇이라고 말하기 어렵네요. 다양한 곳에서 영감을 얻고 있어요. 그 중 그림과 작명 작업을 하면서 SNS에 달리는 몇 천 개, 몇 만 개의 댓글을 항상 다 보며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댓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기 위해 프린트해서 보기도 하고, 수시로 휴대전화로 보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어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 상상하고 영감을 얻거든요. 또, 제가 평소에 예능, 드라마, 만화책을 많이 봐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창의력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Q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 듯하다가 다시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키크니 작가님은 코로나19 전과 후 어떤 부분이 달라지셨나요?

일상적인 부분과 일적인 부분이 많이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SNS를 통해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정지되었다는 것을 더욱 체감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놀러 가는 그림 그려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코로나 이후로는 '코로나 없어지는 세상 그려주세요', '코로나로 너무 지쳐서 확찐자가 된 모습 그려주세요' 등 일상의 이야기가 변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댓글을 통해 알 수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일상이 많이 달라진 것이 와닿았어요.

Q 키크니 작가님이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는 비결이 궁금합니다.

소통을 잘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 제 그림을 좋아해주고 댓글을 달아주는 많은 사람들 덕분이고, 그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SNS를 통해 제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했고,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놔도 좋게 봐주시는 분들 덕분에 정말 기분이 좋고 힘을 얻었어요.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모든 댓글에 답글을 다 달았어요. 지금은 다 달 수 없지만 지금도 하나도 빠짐없이 댓글을 다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꾸준히 그림을 그리며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Q 키크니 작가님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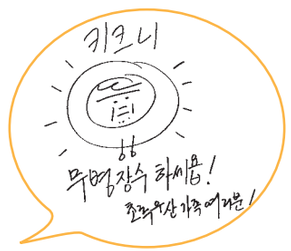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어른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단단하게 보호해주고, 아이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차별 없이 보통 수준의 교육을 다 같이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또 아이들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Q 작가님처럼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은 아이들에게 한마디 부탁합니다.

그리고 싶은 그림을 마음껏, 즐겁게 그렸으면 좋겠어요. SNS 활동을 하다 보니 다양한 연령층에게 연락이 오는데,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도 연락이 많이 와요. 아이들에게는 최대한 대답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중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된 한 아이와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보며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아이는 계속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많은 부담과 압박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그림에 있어서 학력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담을 내려놓으면 더 좋은 그림이 나올 거예요. 부담을 내려놓고 그리고 싶은 그림을 마음껏 그리세요! 지금은 정말 본인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마음껏 그리면서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또 아무 생각 없이 노는 시간도 필요해요. 아무 생각 없이 놀기도 하면서 상상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게 어른이 되어보니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를 추억하면 더 큰 상상력이 나오더라고요.

Q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지원하는 초록우산 후원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나눔을 통해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고, 무엇보다 본인에게도 기쁜 일이 되니 지금처럼 하고 싶은 대로 앞으로도 기쁘게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루두루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Story

초록우산, 초록유산

9월 7일은 '푸른 하늘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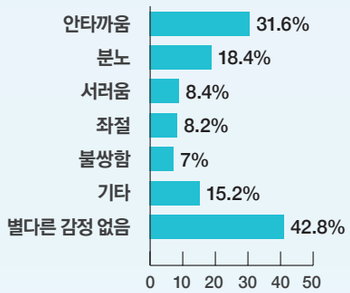
**푸른 하늘의 날, 대기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날입니다.
기후변화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푸른 하늘을 지키고 초록유산을 남기기 위해 초록우산이 함께합니다.**

미래 아이들이 겪을 스트레스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기후학자는 미래 세대의 가장 큰 고통은 학업, 교우관계, 팬데믹도 아닌, 바로 '기후변화'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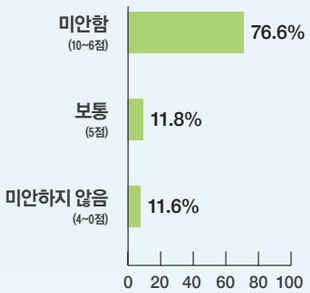
아이들의 터전이 사라진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담겨 있습니다. 2022년 6월 영유아 및 어린이로 구성된 '아기기후소송단'은 이 약속만으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 그 피해를 아이들이 떠안고, 미래 세대의 생명권·행복권 등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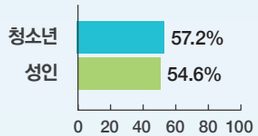
기후변화 관련 어른 세대에 느끼는 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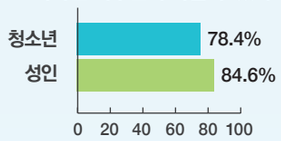
기후변화 관련 자녀 세대에 느끼는 감정
(10점 척도)



"기후변화가 인권침해 부를 수 있다"



"노력하면 기후변화 막을 수 있다"



출처: 한겨레-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공동 진행 설문조사(2020년 10월 16~22일, 14~59세 청소년 및 성인 총 1000명 대상 조사, 마이크로밀엠브레인)

기후위기는 곧 아동학대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의 88%가 5세 미만 아동에게 발생합니다. 폭염·장마·열대야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어려운 주거빈곤, 에너지빈곤 아동의 75%가 질병을 겪습니다. 외출 금지, 등교 제한, 정서적 우울, 스트레스 등을 야기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고 배우며 건강할 권리가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됩니다.

100주년 어린이날 〈플로깅 해, 봄〉

We don't have planet B, We don't have plan B

**지난 5월 재단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쓰레기를 주우며 걷는 시민 참여 캠페인 '플로깅 해, 봄'을 진행했습니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많은 1만4,809명이 신청하며 전국에서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국경을 넘어 전 인류적 공감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는 일,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참여자 후기

*캠페인 기간: 2022. 4.25 ~ 5.31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기에 환경문제에 대해 늘 고민합니다.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아이들에게 희망의 새싹이 되길 바랍니다."
– 오O희 님(울산 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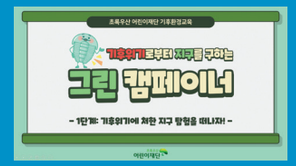
"어린이집 아이들과 진행했습니다.
5월 31일 바다의 날에 바다 주변을 정리했어요.
아이들이 '바다야, 우리가 지켜줄게!'라고 하네요."
– 조O례 선생님(경남 양산, B어린이집)



"에코의 일상화를 기대하며 학생들과 참여했습니다.
매일 걷는 등굣길에 쓰레기가 이렇게 많았다니! 반성과 뿌듯함을 동시에 느끼며 활동했습니다."
– 김O희 선생님
(경기 의정부, B초등학교)

[Tip] 지금 바로 '그린캠페이너'가 되어 보세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환경시민으로 성장해나가기 위한 참여형 수업으로, 전국 초·중학교 및 해당 연령대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최소 10인 이상)



※ 자세한 내용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홈페이지 참고

Story

생물다양성 보전하며 함께 살아요!

지난 5월 경남아동옹호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후환경교육과
양서류 보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기후환경교육을 통해 기후위기에 처한 지구,
그 지구를 살리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을 함께 배우고 람사르생태공원 및 습지와
아기 두꺼비를 관찰하고 아기 두꺼비 보호 팻말을 제작하며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펼쳤습니다.



아기 두꺼비 찾기



아기 두꺼비 관찰



아기 두꺼비 보호 팻말 제작



아기 두꺼비 팻말 설치

활동을 마친 후 5글자로 소감을 나누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두꺼비 좋아, 행복했었다, 두꺼비 예뻐, 두꺼비 무섭, 모두 다 소중' 등 느낀 점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한 명은 "꼬물꼬물~ 꼬물꼬물~ 올챙이가~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노래를 부르며 걸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 모두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해요!!

아이와 지구를 지키는 나눔,

해외 어린이들에게 '깨끗한 빛'을 선물하는 Alright

전 세계 아동의 3명 중 1명, 약 1억8,000만 명의 아동이 전기 공급이 없는 학교에 등교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초등학교 10개 중 9개는 전력 부족에 시달려 아이들의 교육 성과를 저해합니다.

전기가 없는 곳에 사는 아이들은 케로신(등유) 램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케로신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지구에 해가 될뿐더러 아동의 호흡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케로신 1kg당 이산화탄소 3kg 배출

그래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후원자님들과 함께 아프리카 국가 및 개발도상국 아이들에게 '깨끗한 빛'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후원자님의 도움 손길이 모이면 지구에 해가 되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 '태양광'으로 아이들의 삶이 더 밝아집니다.



지원 예정 국가
부르키나파소, 탄자니아, 케냐, 네팔, 라오스, 인도네시아

태양광 램프로 전기가 닿지 않는 지역의 아이들이 깜깜한 밤에도 집에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감염병 상황 속, 학교에 가지 못해도 태양광 라디오를 이용해 수업을 들으며 꿈을 키울 수 있어요.

전기가 닿지 않는 지역의 학교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교실을 밝힐 수 있어요.

태양광 에너지로 물을 끌어올리는 우물을 설치해 아이들이 학교에서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지속 가능한 청정 에너지로 아이들에게 빛을 선물하는 Alright 캠페인.
아프리카 국가 및 개발도상국 아이들의 교육권과 안전한 삶을 보장합니다.

Alright 캠페인 참여하기

해외 아동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물하신 모든 분들께
충전식 LED 램프를 보내드립니다.



초록유산을 지키기 위해 초록우산과 함께해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어린이날 이야기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2022 어린이 말씀' 선포식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억하시나요?
'모든 어린이가 어린이답게 사는 나라'를 모토로 어린이 인권 해방을 선언하며 제정한 어린이날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매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어린이날마다 어린이들과 함께했습니다. 이번 어린이날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하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이 직접 선정한 메시지를 '어린이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다양한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세요."
"우리의 말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는 이 나라의 미래, 잘 부탁드려요."
"어린이들에게 바른 본보기가 되어주세요."





6월 16일은 아프리카의 어린이날!

아프리카의 어린이날을 아시나요? 1976년 6월 16일, 1만여 명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이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토착어와 영어가 혼합된 언어 '아프리칸스어(Afrikaans)'로만 학교 수업을 진행하라고 방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침은 '차별과 억압' 그리고 백인 지배의 상징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토착어로 수업받을 권리를 요구하는 평화 시위를 벌였으나 정부의 무력 대응으로 수많은 아동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5년 뒤인 1991년, 아프리카연합에서는 희생된 아동들과 그들의 용감한 행동을 기리고자 6월 16일을 아프리카 어린이날(The day of African Child)로 정했습니다.

아프리카연합에서 선정한 2022년 올해의 아프리카 어린이날 주제는 '아동에게 해를 끼치는 악습 철폐'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성할례, 아동결혼 등의 악습은 더욱 빈번해졌고, 이는 아동 임신과 사망 등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도 매년 아프리카의 국가 르완다, 말라위, 탄자니아에서 아프리카 어린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6월 16일, 아프리카 어린이날은 어린이로서 그동안 어른들에게 못다 했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은 마을에 모여서 아동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권리 침해 상황을 연극이나 발표문으로 만들어 대중 앞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을 통해 어른들이 느끼는 것이 있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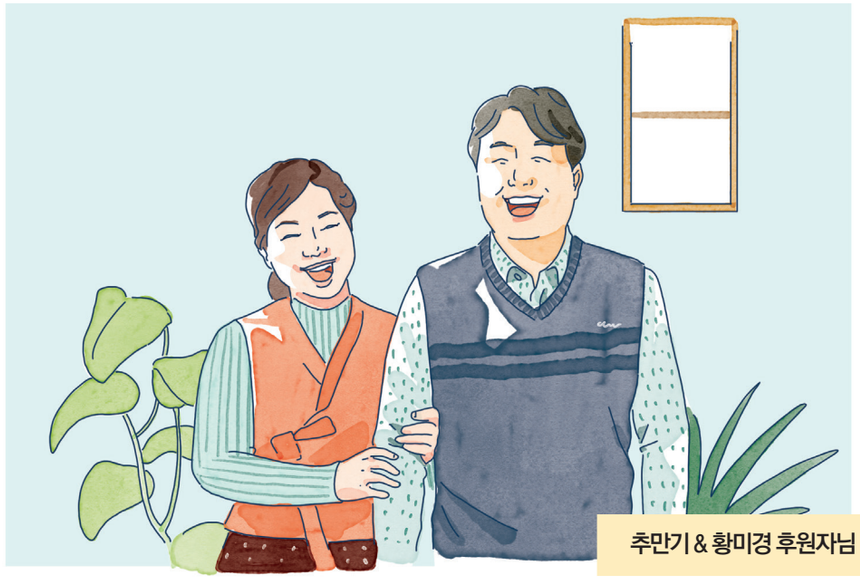
매년 6월 16일, 아프리카 아이들이 거리에서 외치고 있듯이 아직도 아동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끔찍한 악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를 누리며 살고 체벌, 방임, 여성할례, 아동결혼 등의 모든 악습이 사라지는 그날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꿈꿉니다.

아프리카 어린이날
영상 보러 가기

CHILDREN'S DAY

후원자 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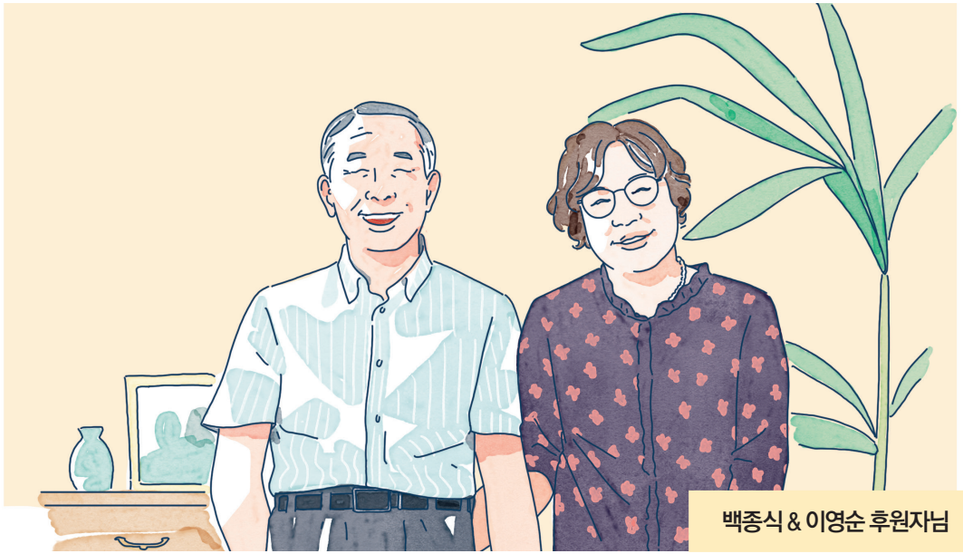
초록우산과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후원자님. 아이들을 위해 혼자 후원을 하기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나눔의 의미, 함께 할수록 더 큰 기쁨, 후원자님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추만기 & 황미경 후원자님

"나눔,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하자고 해요"

30년 전, 두 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셋째 아이를 낳고는 싶었지만 두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셋째를 낳기보다 우리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셋째 아이처럼 생각하며 나누어야겠다는 마음으로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후원을 하면서 자연스레 자녀들에게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명절 기념으로 후원하는 아이들에게
신발 선물을 사서 보내는 모습에 자녀들이 질투를 하기도 했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 기다림과 나눔을 배웠다고 하네요.
자녀들에게 후원 아동들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가 하는 활동을 자연스레 나누었고 지금은 새로운 가족인 며느리까지
함께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눔을 우리 부부만 하지 않고 나누고 함께하니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적은 금액의 후원, 나눔을 통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어 감사하고,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어 기쁩니다. 이 나눔을 우리만 할 수 없어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하자고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온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함께 나누자고 하겠습니다.



백종식 & 이영순 후원자님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는 우리"

초등학교 시절부터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어린 시절 일이 생각나서 조금이라도 주위 아이들을 지원하고
싶은 마음에 후원을 시작한 지 벌써 33년이 되었네요.
초록우산을 통해 처음 인연이 된 조손가정 아이와 좋은 기회로
방송국을 통해 직접 만날 기회가 생겼고 아이를 만나 옷 한 벌
사주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아이를 만났을 때, 내 아이
같았고 정이 많이 갔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아이들과 결연을
이어갔고,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취업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으니 내 자식이 잘된 것처럼 정말 기뻤습니다.
지원을 하면서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자립을 빠르게 한 아이가
있었고 스스로 자립한 모습을 보며 참 감사했습니다.
사실 계속 후원을 한다는 게 부담이 된 적도 있지만,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쉽게 끊지 않고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이 있으니 할 수 있는 만큼은 계속하겠다는
다짐과 무엇보다 이 나눔을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서 지금까지
후원을 이어왔습니다. 앞으로도 힘과 여력이 되는 한 죽을때까지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쓰는 편지

어린이 여러분, 이 세상에 귀하지 않은 삶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을 항상 소중히 여기고 가꾸세요.
여러분들은 미래입니다.
살면 힘들고 힘들지 않은 변화무쌍한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항상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굳은 마음과 간절함을 품고 꿈꾸고 살면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부모님들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관심과 사랑을 준다면
어려운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내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더 넓게 바라보며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2022년 9월의 어느 날,
백종식 & 이영순 드림.

“당신이 남기고 간 자리가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9월 13일은 유산기부의 날입니다.
유산기부의 날을 맞이하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소중한 유산을 남겨주신 권유진·김지혜 후원자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권유진 후원자님



김지혜 후원자님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권유진 후원자 | 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하는 올해 35살, 8년 차 소방관으로 재직중인 권유진입니다.

김지혜 후원자 | 안녕하세요. 올해 30살, 서울 소재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학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혜입니다.

Q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초록우산과의 첫 만남이 궁금해요.

권유진 후원자 | 저도 어린 시절 사회복지관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직업을 가지고 고정적인 소득이 생기면서 막연하게나마 후원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지인을 통해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알게 되어, 후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후원을 하게 된지는 5년정도 되었어요.

김지혜 후원자 | 아동, 청소년 분야에 줄곧 관심이 있어서 심리학도 전공하게 되었어요. 기부를 할 때도 어린이를 위한 모금처를 알아보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대한 추천을 주변에서 많이 받아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젊은 나이에 유산기부라는 결정을 하기까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유산기부를 하게 되셨나요?

권유진 후원자 | 소방관, 구조대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고들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겪게 되고, 정말 사람 일이 1분 전과 후가 너무나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현장에서 내 1분뒤도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늘 있었고, 혹시라도 어떤 사고로 내가 잘못되게 되면 내 유산의 일부나마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지혜 후원자 | 어린시절부터 걱정이 많은 성격이었어요. 병원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죽음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유산기부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Q 유산기부를 하게 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권유진 후원자 | 유산기부라고 하는 것을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더 나은 실천을 할 수 없어서 스스로 부끄러워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고 타인을 돕고자 하는 실천의 벽이 높다는 것도 많이 느끼고요. 동시에 내 능력을 더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1억원이라는 금액을 유산으로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제 스스로 유산기부 전에 살아있을 때 더 큰 가치를 나누는 환경을 만들고 실천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젊은 나이라 저 스스로의 성장을 우선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후원,기부,봉사에 대해서 물질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김지혜 후원자 |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되면 아이들에게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저도 어린 시절 많은분들께 도움을 받아서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른이 된 제가 이제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차례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지녀왔던 짐을 덜게 되어서 가벼운 마음입니다.

Q 후원자님에게 ‘기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 이유도 알려주세요.

권유진 후원자 | **당연히** 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 의무 아닐까요? 기부하면 돈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대한민국 평균소득이 3만 달러, 스위스 평균소득이 6만 달러예요. 지난 통계지만 전 세계 통계로 치면 1년 소득 3,000만원이면 소득 상위 1%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스위스에서 태어났다면 더 큰 행복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만 해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운이 좋아 한국에 태어났고 이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이지, 내 노력과 비례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운이 좋아 혜택 받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 의무라고 생각해요. 마치 납세의 의무와 같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혜 후원자 | **당연한 것,** 그리고 마음의 빚처럼 여겨집니다. 계속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세대는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른들의 후세대들에 대한 사랑 덕분에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부분이 있으니 저도 다음 세대를 위해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저도 어린시절부터 여러 경제적·심리적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다른 아이들을 도울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Q 후원자님이 생각하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권유진 후원자 | 사실 행복이라는 게 상대적인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번 소식지 테마처럼 당연한 것들, 아이들이 사랑받으면서 천진난만하고 꿈이 있고 잘 먹고 아프지 않고 이런 삶이 사실 당연한 삶이잖아요. 이렇게 당연한 것들만 보장된다면 행복한 세상 아닐까요?

김지혜 후원자 | 아이들이 마음껏 투정부릴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어른들에게도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얘기하는 아이들을 만날 때면 마음이 아파요. 적어도 심리검사를 하는 동안만큼은, 아이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과제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다짐을 하며 일하게 됩니다.

Q 마지막으로 소식지를 보는 독자들(어린이, 후원자 등)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권유진 후원자 | 제가 소방관이다 보니 늘 다양한 사건·사고를 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건·사고로 삶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지내면서 느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삶이 행복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모두 불조심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어 무사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김지혜 후원자 | 검사를 마치고 환자분을 배웅하고 나서도 환자분께서 들려주신 어린 시절 얘기가 마음 한구석에 오랫동안 머무르곤 합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난 어린시절에 대한 기억을 한가득 안고 살아가는 환자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 중 하나가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기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시절의 제가 가장 기뻐할 선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아이들의 행복한 어린 시절을 위해 꾸준히 기부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평소 혼자 간직했던 생각들을 나눌 수 있어 참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얘기를 들어주신 초록우산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for CHILDREN
GREEN LEGACY CLUB
그린레거시클럽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후원자의 소중한 유산을 남겨주신 후원자 단체입니다.

유산기부 |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공익을 위해 기부하기로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후에도 귀중한 나눔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유산기부는 자라날 아이들에게 성실, 겸손, 나눔 등의 정신적 유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활동입니다.

유산기부 절차 |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 〉 유산기부 담당자와 상담 〉 유언 및 기부 서약식 〉 그린레거시클럽 등록 및 예우 〉 미래 어린이들을 위한 기부

유산기부 종류 | 현금, 부동산, 주식, 보험금, 현물

유산기부 방법 | 생전 유산기부, 유증, 신탁, 보험, 경매, 유가족기부 등

그린레거시 클럽이 더 궁금하다면?

"후원자님의 뜻을 늘 기억하며, 어린이재단이 소중히 꽃피우겠습니다."



#일상스타그램

■

Green News

■

정기후원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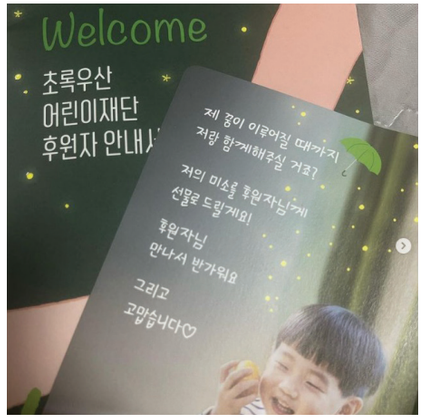
■

독자 후기

일상스타그램

인스타그램에서 찾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일상 인증샷!

noori_☆☆



10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싶어요.
모든 아이들이 안 아프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수단으로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시작한 친구들은 끝까지 후원하고 싶어요.
#초록우산어린이재단#후원약속#나의3번째아이

jjangi☆☆



한 달 용돈 20만원에서 3만원은
초록우산으로 보내는 중!
큰돈은 아니지만 시작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우선 다달이 해낼 수 있는 만큼 도전~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모두들 가능한 선에서 동참해주세요.
#찬스팔찌#어린이재단#초록우산어린이재단#초록우산#기부#기부팔찌#동참해주세요

letech_k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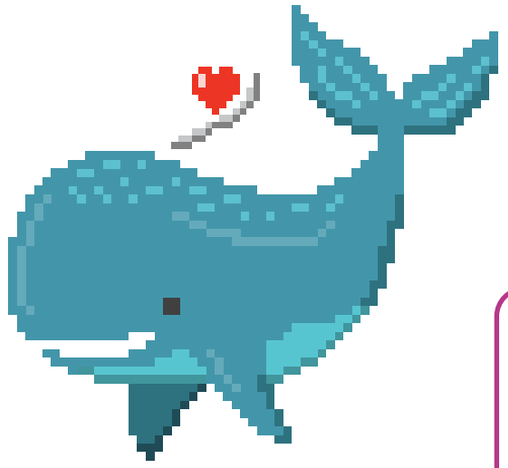


어느덧 1년
내가 힘들고 고단했던 것만큼
너희들은 반대로
좋은 거 많이 먹고 좋은 것만 보고 자랐으면 좋겠다.
#재능기부#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빠이야

tae_hs☆☆



아이들이 미래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소식을
인스타그램에서 바로 만나보세요!
LIVE
@childfundkorea_official

GREEN NEWS

지역소식

경북지역본부&전남지역본부 1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영호남 화합의 하모니' 오케스트라 합동연주회 개최

8월 4일, 포항시 구룡포청소년수련원에서 경상북도, 전라남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 전남지역본부가 나눔문화 확산과 문화적 교류를 위해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하고 각 도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음악을 통해 지역 간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합동연주회를 개최했다.

경기지역본부 2



경기지역본부, 수원시에 폭염 대비 특별지원금 전달

경기지역본부는 7월 28일 수원시청에서 어린이재단 경기후원회와 함께 수원시 폭염 대비 아동특별지원금 3,000만원을 지원하는 전달식을 진행했다. 해당 지원금은 수원시 내 에너지 빈곤층 아동 60가구에 냉방비, 냉방용품 지원 등의 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과 함께 수원시 아동지원을 위한 간담회도 진행하여 앞으로도 수원시와 함께 긴밀한 협업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울산지역본부 6



울산 소재 6개 복지관에 아이 셀프 꾸러미 5,500만원 지원

울산지역본부는 8월 2일 울산 소재 6개 복지관에 아이 셀프 꾸러미 지원사업 프로그램비 총 5,500만원을 전달했다. '아이 셀프 꾸러미 지원사업'이란 아동이 주거적정기준 보장을 위해 자신의 집에 필요한 물품을 생각해보고, 실제 필요한 물품 꾸러미를 지원받는 아동권리 기반 프로그램으로 울산지역본부에서 202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울산 소재 저소득가정 아동 260명에게 아이 셀프 꾸러미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아동옹호센터 7



전라남도 꿈나무 드론 축구대회 개최

전남아동옹호센터는 7월 30일 지역 아동 100명이 참여하는 '전라남도 꿈나무 드론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출 금지, 또래 관계 단절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한 이번 대회는 총 13팀(초등 10팀, 중고등 3팀)이 출전했으며 다양한 소프트웨어 체험 등 방학을 맞은 아동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전북지역본부 8



익산후원회 지역인구 1% 후원자 개발 선포

전북 익산후원회는 7월 4일 익산지역 인구 1% 후원자 개발 선포식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익산시 정헌율 시장 등 관계기관 내외빈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익산시 인구 27만8,496명의 1%인 2,784명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후원자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선포하고, 2023년 6월까지 후원자 개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후원자-아동 만남의 날, '2022년 사랑나눔큰잔치'

대전지역본부는 8월 1일 엑스포과학공원 음악분수광장에서 어린이날 100주년 맞이 후원자-아동 만남의 날 '사랑나눔큰잔치'를 열었다. '사랑나눔큰잔치'는 대전지역본부와 대전시가 198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행사로, 올해는 아동이 충분히 쉬고 놀 권리를 옹호하고자 '어디든 놀이터, 물놀이 하기 딱 좋은 날!'이라는 주제로 수중 명랑운동회와 물총대전을 진행했다.



대전지역본부 3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아산사업장과 함께하는 2022 불꽃 메신저 진행

충남지역본부는 7월 1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와 함께 천안여자고등학교에서 2022 불꽃 메신저 행사를 진행했다. 불꽃 메신저는 천안 소재 고등학교로 명사를 초청해 진로 특강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2019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여성 래퍼 신스가 초대되어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과 노력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깜짝 공연을 펼쳐 학생들의 뜨거운 성원을 받았다.



충남지역본부 4

LH-재단, 서울대학교에서 임대주택 아동 '창의성 개발교육' 실시

경남지역본부는 LH, 한국창의성학회와 함께 8월 5일 서울대학교에서 임대주택 아동을 대상으로 '창의성 개발교육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하고, LH는 1억6,000여만 원의 후원금을 재단에 전달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들의 창의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 교수진의 창의성 강의, 캠퍼스 투어와 함께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이 멘토로 활동해 더욱 내실 있는 사업이 되었다.



경남지역본부 5

영웅시대 withHero 강원, 가수 임영웅 데뷔 6주년 기념 후원

강원지역본부는 8월 8일, 영웅시대 withHero 강원과 함께 가수 임영웅의 데뷔 6주년을 기념하여 후원금 500만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해당 후원금은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냉방용품, 에너지 비용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영웅시대 withHero 강원은 지난 6월 16일에도 가수 임영웅의 생일을 기념하여 616만원을 전달하는 등 강원도 내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원지역본부 9

지역아동센터 대구지원단과 업무협약 체결

대구지역본부는 7월 11일 지역아동센터 대구지원단과 '저소득가정 아동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대구광역시 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2,085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AI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 및 멘토링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지역본부 10

News

본부소식

교육기부 우수기관 교육기부 우수동아리

2022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신규 선정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2년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신규 기관으로 선정됐다.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는 정부가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우수한 지적재산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인증 기준을 정하고 심사를 통해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인권 및 인성 분야에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콘텐츠를 무상 지원해온 성과를 인정받아 2022년 신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22 제1차 월례 세미나 개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가 7월 1일 재단 본부 그린아고라 교육장A에서 제1차 월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월례 세미나는 학계나 정책 현장의 최근 논의 또는 새로운 변화를 나누는 배움의 장으로서 참여자의 성장과 지식공동체를 이루는 경험을 제공한다. 제1차 월례 세미나에서는 정소희 교수(대구대 청소년상담복지학과)가 '아동양육시설에서 성장한 아이들의 애착 경험'을 주제로 아동의 긍정적 애착 경험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 월례 세미나 참가 : 관심있는 분들은 누구나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www.childfun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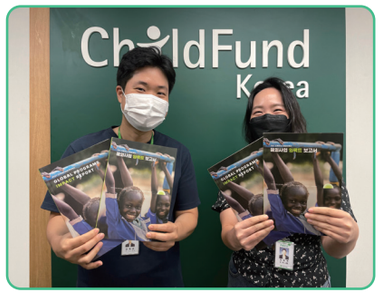
인재양성사업 발대식 '아이리더 멤버스데이' 진행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8월 6일 인재양성사업 '초록우산 아이리더' 발대식 '아이리더 멤버스데이'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이리더 80여 명과 가족이 함께 참석했다. 2022년도 아이리더 임명장 수여식과 더불어 참여 아동들은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후 자신의 성격 유형 이해와 타인과의 관계 증진을 위한 소통 방식을 익히고, 진로와 진학에 보탬이 될 비전 설계 특강도 함께 들었다.



2021 해외 사업 임팩트 보고서 발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국제개발협력본부는 2021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해외 사업 임팩트 성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재단은 해외 사업을 통해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라는 임팩트 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 아동보호, 재난위험경감 등 3개 영역의 '아젠다'를 설정했으며, 2021년 작년 한 해 동안 아젠다 사업을 중심으로 해외 사업에서 수많은 임팩트를 창출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성명		□남 □여	영문명	* 해외 아동을 도우실 분은 영문 성명을 작성해주세요.
주민번호 앞 6자리			E-mail	
휴대폰 번호			집	
주소				

❶ 후원 영역에 체크해주세요. □국내후원 □해외후원

❷ 후원가입 및 금액에 체크해주세요. □정기후원 □월 2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기타( ) 원 □일시후원( )원

❸ 후원방법란에 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동이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앞 6자리	이체일 □10일 □20일 □30일	

□카드결제

카드번호	유효기간(월/ 년)	카드 소유자명
카드 소유자 주민번호 앞 6자리( )		

※ 기부금 영수증 신청(후원자명으로 발급) □예(주민번호: -) □아니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인정보는 본 목적에만 사용됩니다. 주민등록번호 필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영수증을 받으실 분은 1588-1940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자 서비스 **희망함** □문자(SMS) □우편 □이메일(정보란에 기재 필수) **희망하지 않음**□

* 후원자 서비스: 소식지, 연간보고서, 후원내역서

상기 내용과 같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후원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 인 (서명)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와 전자금융 거래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4조(소득금액의 30% 이내에서 세액공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 제24조(소득금액의 10% 이내에서 손비인정)에 의거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에 관련된 문의 및 기타 문의사항은 대표전화 TEL. 1588-1940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후원회원가입 및 후원신청에 따른 결연 아동 및 후원금 집행 안내, 후원금 자동이체출금, 신용카드 결제 및 납부 확인,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필수정보: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앞 6자리),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 주소, 성별 - 선택정보: 이름 영문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자동이체정보, 카드결제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후원회원 가입일로부터 회원 탈퇴 시까지. 단, 필요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됨.
4. 선택정보를 기재하지 않으실 경우 기부금영수증(국세청 간소화포함) 발급, 후원정보 및 소식지 등의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후원회원가입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 정보는 미입력 시 회원가입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단소식 안내(홍보)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SMS(문자) □전화 □이메일 □주소(우편)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법정 대리인이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지 않음(전체) □*동의 거부 시 해당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대리인 서명 (연락처)

전화(1588-1940)와 홈페이지(www.childfund.or.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_____

_____



미니맵에서 목차와 다른 그림을 찾아주세요!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21. 12. 02 ~ 2022. 12. 01

서울중앙우체국
승인번호 40126호

받는 사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1278호

Tel. 1588 1940 | Fax. 02 777 9321

0	4	5	2	2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From.

To.



✂ 위의 점선을 가위로 잘라 엽서로 활용하세요.

01. 이번 호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기사는 무엇인가요?

02. 〈초록우산〉을 통해 특별히 더 만나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03. 이번 호에서 불편하다고 느끼신 기사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04.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하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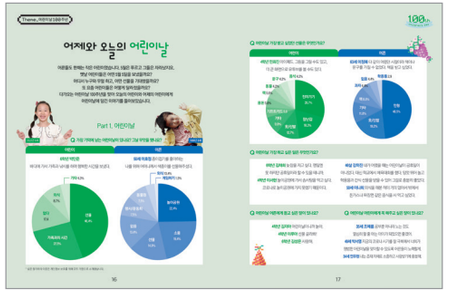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독자분들의 의견을 귀담아듣는 〈초록우산〉이 되겠습니다.

이름 연락처

News

READERS REVIEW

QR코드로
독자 의견을 작성하세요.



어제와 오늘의 어린이날

어린이들과 어른들의 생각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많이 달라졌다는 걸 새삼 알 수 있었던 재밌는 코너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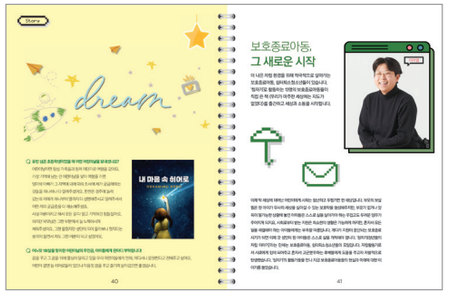
정영림 후원자



후원자 스토리 김수정 후원자

초록우산을 후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 항상 궁금했는데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어요. 저도 후원자 스토리에 실릴 수 있는 성공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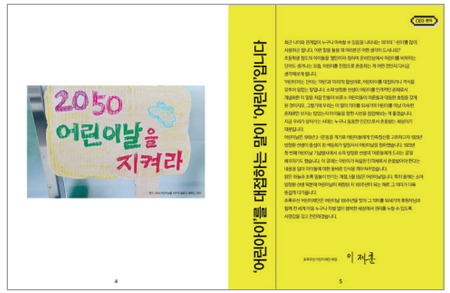
정빈 후원자



보호종료아동, 그 새로운 시작

자립활동가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와 제도가 해줄 수 없는 일들을 이분들이 하고 계시네요.

최은숙 후원자



CEO 편지

'어린이'에 대한 표현의 문제를 어린이날 100주년과 적절한 화두로 제시하여 좋았습니다. 다양한 어린이 주체의 목소리를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정효진 후원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기후변화 및 초저출생 이슈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고민하며 여러 기업들과 함께 ESG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호에서는 재단의 ESG 사업을 소개합니다!

착한 소비로 만드는 아동의 내일
온라인 나눔 스토어 〈마켓그리니〉

MARKET Greeny

마켓그리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공식 온라인 나눔 스토어로 발생된 판매 수익을 아동의 자립을 위해 사용합니다.
일상 속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초록빛 지구와 아동을 위한 한 걸음, 친환경 제품들이 가득한 마켓그리니와 함께 시작해볼까요?



01. 친환경 보온·보랭 가방

마켓그리니의 스테디셀러 중에 스테디셀러! 땅에 매립해도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 100%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합성소재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도시락 가방, 피크닉 가방 등으로 스타일리시하게 활용해보세요.

ch***** 가방 자체는 되게 가벼운데,
내부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서 실용성 있네요.
안 쓸 때는 접어서 보관하니 편리해요.



02. Circle of Good Deeds 텀블러

유명 커피 브랜드의 글로벌 디자이너와 협업으로 제작한 텀블러입니다. Circle of Good Deeds는 착한 소비를 통해 도움을 받은 아이들이 멋진 어른으로 자라나는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마켓그리니 텀블러와 함께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해보세요.

al**** 아이들과 같이 쓰려고 두 개 주문했는데
넘 맘에 들어요♥ 예쁜 텀블러도 생기고
좋은 일도 하고~~ 자주 이용하겠습니다!



03. Circle of Good Deeds 에코백

Circle of Good Deeds 시리즈 중 하나인 데일리 에코백입니다. 어떤 코디에도 시선을 사로잡는 산뜻한 디자인으로, 두께감 있는 캔버스 소재에 내부를 코팅 처리해 디자인과 내구성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넉넉한 사이즈에 내부 주머니까지 있는 마켓그리니 에코백으로 일상에서 그리니 라이프를 경험해보세요.

pm***** 기존 다른 에코백과 달리 소재가
탄탄하고 수납공간이 좋습니다.
마켓그리니는 감동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초록빛 내일을 위한 착한 소비! 후원자님 단독 혜택으로 쉽게 시작해보세요!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자님을 위한 혜택 ***
할인코드 | childfirst (15% 즉시 할인 일부 품목 제외)
사용방법 | 마켓그리니 사이트 접속 후 물품 구매 시 할인코드 입력(www.marketgreeny.or.kr)

마켓 그리니
바로가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